

서평

經濟地理學への招待  
(경제지리학으로의 초대)

伊藤達也・小田宏信・加藤幸治(이토 다츠야・오다 히로노부・카토 고지) 編,  
2020, 京都: ミネルヴァ(미네르바)書房, 352쪽.

한주성\*

경제지리학 단행본의 분야별 구성은 각 국가 경제현상의 시공간성, 접근방법의 변천, 저자의 관점과 독자의 수준, 집필당시의 이슈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또 분야의 전개방식도 경제지리학의 방법론에 이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원, 자본, 노동, 국가 및 산업별 생산과 소비 및 지역발전의 순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주요 이슈를 산업과 소비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용구성에서 부동산, 중추관리기능, 교통, 관광, 환경문제, 도시 등을 넣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일본에 유수의 경제지리학 서적들이 출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강조하며 학부생용으로 제한된 지면에 14명의 공동저자가 序章을 포함해 4부 20개장을 집필한 것이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장(환경·공간과 경제사회)에서는 경제지리학의 성립과정 및 경제지리학의 상황변화에서 도쿄 일극 중심과 세계도시 및 지방의 한계화, 글로벌리제이션과 동아시아의 부흥에 대해 기술했다. 또 풀세트(full set)형 산업구조가 붕괴된 후 경제지리학의 과제로서 환경의 확보, 지역의 복원, 인간의 재평가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제 I 부(경제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경제입지의 이론)에서는 고전경제입지론과 집적·분산이론을 개관한 뒤 외부불경제가 집적지에서 기업을 분산시킨다고 했

다. 제2장(지역경제 발전의 기제)에서는 지역경제의 발달을 살펴보고 그 단계발전론과 도시의 경제기반설 및 전후방연계 효과를 기술한 후 지역개발이론을 언급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글로벌화·지식경제시대에 지식자원의 융합을 겨냥한 지역 성장전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3장(서비스 경제화와 커진 지역 간 격차)에서는 소득증대로 서비스 수준이 확대되고 외부화 되었다고 하고, 공급차원의 서비스 경제화에서 제품차별화의 경쟁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져 사업 서비스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 이동비용은 재화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그 권역은 좁으며, 기회비용과 인구집적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positive feedback loop)가 서비스업의 도심회귀를 불러왔다고 했다. 제4장(사람들의 경력과 경제 공간)에서는 노동의 지리학을 설명하며 공간적 궤적에서의 분석시각을 제시했고,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시공간적·기능(skill) 불일치(mismatch)를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의 사회적 조정<sup>1)</sup>의 존재는 고용자의 평판이나 직업경력에 대한 이상 또는 문화적·사회적 문맥을 반영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직업경력에 다른 특징으로 각인된다고 하며 일본의 경제성장기 경제공간과 직업경력에 대해 서술했다.

제 II 부(글로벌화와 지역경제) 제5장(경제의 글로벌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화와 산업입지·지역경제)에서는 글로벌화 시기 이전의 광역적 분업체계는 가공조립 공업으로 대량생산방식이라는 공간조직 원리였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또 그 후 일본공업의 지방분산 입지체계를 서술한 후 다국적기업의 전개조건, 글로벌 전개입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기술하고, 일본공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입지의 변용에 대해 언급했다. 제6장(공급사슬과 남북문제)에서는 사슬의 접근방법을 생산·상품·식료사슬 등으로 나누고, 사슬 각각의 단계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이나 제도에도 초점을 두며, 또 사슬이 왜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 했다. 또 상품사슬은 세계시스템론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기본적인 분석시각은 거버넌스의 구조라 하고, 식료, 공업제품으로서 의류의 상품사슬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글로벌화 폐해의 대응으로 공정무역과 윤리적 거래, 공급사슬의 글로벌화에 대한 로컬화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적시했다. 제7장(경제를 좌우한 지역의 제도·문화)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영역의 유무에 의한 제도 및 제도가 지역경제를 좌우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제도와 문화를 사례로 공작기계 생산자와 이용자인 제조업자 사이,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공급업자 사이의 거리는 신뢰관계에서 거래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리고 제도·문화의 변용 사이클에서 비공식적 제도의 고착성(lock-in), 내측과 외부와의 관계로 변용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제8장(도시의 발전이 낳은 도심문제)에서는 1960년대에 도시성장으로 歐美에서 발생한 도심(inner city)문제의 발생배경 및 영국의 도심문제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도심문제의 다양한 대응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서비스 경제화와 세계도시화의 진전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인구감소사회에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및 교외화의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고, 도시의 축소로 인한 식료시장, 빈집, 빈터의 경관, 사회·행정적 문제를 언급한 후 압축도시 지향을 지적했으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9장(글로벌 시대의 도시와 도시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도시순위 변화와 도시의 경제력 변화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와 기업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하고, 세계도시와 글로벌 도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시스템과 도시네트워크를 언급하고 글로벌 시대에 이들 연구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대의 도시네트워크 구조나 형성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도시 간 경쟁이 심해 국가 간, 국내 도시 간, 세계도시 간 격차확대가 산업과 고용 및 소득 면에서 분극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제Ⅲ부(산업집적과 지역) 제10장(지역 속에서의 상품만들기)에서는 메이지(明治) 정부가 실시한 殖産興業정책으로 시작된 일본의 공업입지의 변화를 공정·사회적분업의 집적으로 설명하며, 포드주의와 그 이후의 시장변화에 대응한 생산체제, 고부가가치 생산체제의 전환으로 공정한 국제 분업이 전개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상품생산의 지원 산업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조립메이커의 해외이전으로 산업집적지역이 축소되어 지역재편을 가져와 경제적 접근방법을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집적에서 클러스터 및 진화경제지리학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11장(공업화로 변한 신흥국)에서는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쫓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아시아 신흥국의 발전기제나 해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타이와 인도를 사례로 공업화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분업, 신국제 분업으로 변모했다고 언급하면서 제품주기 이론과 안행형태론을 설명했다. 그리고 타이와 도농 간의 지역격차를 탈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최상위 국가전략 계획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겨냥한 경제성장 전략인 'Thailand 4.0'을 실시했다고 하였다. 제12장(정보통신업의 집적)에서는 일본의 정보화 전개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한 1990년대의 전기통신시장의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정보화에 따른 표준산업분류의 재분류를 다루었다. 또 정보통신업의 입지에서 도쿄의 일극집중과 전국의 3계층 집중현상을 설명했다. 제13장(도시에 집중된 창조산업)에서는 창조산업의 성립과 문화산업,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이 각각 다른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며 각각의 정의와 사용 시기를 언급했다. 또 경제의 지식·서비스 산업화의 상징인 멀티미디어 산업은 도시에 집적하는

전형으로 거래관계와 지방노동시장이 그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산업집적에서 유연적 전문화로서의 창조산업과 그 배경 및 창조도시를 언급한 뒤 그 연구의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창조산업의 도시론과 산업론은 언급되지 않았다. 제14장(농업지역의 경제력)에서는 식료공급의 역할을 하는 농업을 지리학에서 어떻게 분석해 왔는가를 정리하고, 경제의 글로벌화로 오늘날의 농업지역이 처한 상황을 국내의 경제적 환경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 농업지역의 특징을 고찰하고 금후의 식료공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책이 필요한가를 검토했다.

제IV부(지역의 지속가능성) 제15장(쇼핑센터의 功過)에서는 유통플랫폼(platform)의 등장배경과 유형을 기술하고, 임대점포 유형인 쇼핑센터를 미국, 인도,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비교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지었다. 또 쇼핑센터의 입지는 일본사회가 구매와 오락의 편리성, 지역의 고용증대 및 중심지체계 재편, 토지이용의 교란, 負의 외부효과(교통정체 등 환경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고, 쇼핑센터의 등장이 사회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제16장(중심상점가의 행방)에서는 쇠퇴가 진행 중인 일본의 중심상점가에 대해 유형별 現狀과 쇠퇴 이유 및 재생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 부흥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대처를 소개하고 중심상점가의 존재가치로 금후의 상점가에 대한 전망을 했다. 제17장(농·산촌의 활성화)에서는 일본의 농업지역 유형구분을 하고, 과소화로 한계취락의 등장과 고령사회화로 농촌계획론이나 소멸가능성 도시론을 철화함에 따라 농·산촌이 직면한 부적 고령화(negative aging)가 정적 고령화(positive aging)로 전환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 행정구역 합병으로 재편된 농·산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 후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만들기의 전개와 농·산촌을 보는 시선의 변화로 농촌공간의 상품화 및 귀촌·귀농의 움직임도 파악했다. 제18장(관광·투어리즘<sup>2)</sup> 사업이 가져온 지역의 변화)에서는 관광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관광 지리학 접근방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새로운 관광으로서 지오파크(Geopark)의 정의와 시즈오카(静岡)현 이즈(伊豆)반도, 고치(高知)현 무로토(室戸)시 지오파크를 사례로 그 성립과정을 설명했

다. 제19장(환경보전과 지역진흥은 양립할 수 있을까?)에서는 환경보전과 지역진흥 양립을 문제제기하고 자원·환경문제의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비용론, 사회적 손실론 등을 언급한 뒤 후쿠오카(福岡)현 다누시마루(田主丸)읍의 물속에 산다는 어린애 모양을 한 상상의 동물을 사례로 수변환경 보호운동과 지역진흥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 책의 구성에서 도시와 관광부문을 포함시켰으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현상의 모빌리티와 도시의 경제적 충추관리기능은 경제지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략했다. 또 산업별 분야구성에서 예를 들면 제I부에 제7장을, 제14장과 제17장은 농·산촌의 현상어기에 같은部に 배열했으면 한다. 또 교과서는 이론과 해당 국가의 사례연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론부분이 결여된 장이 여러 곳 발견되었다. 현대의 경제현상을 지리학적으로 파악해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지면의 제약도 포함해 어떤 분야를, 무슨 내용의 수준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주

- 1) J. Peck이 조절이론 등을 참조로 발전시킨 개념으로, 노동시장은 시장기제가 제도가 습관이 되어 존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 2) 관광은 여가활동, 레크리에이션, 행락 등 일상생활을 벗어나 즐거움을 행하는 여행이고, 투어리즘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현상으로 개인 또는 상용목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외적 환경인 국가나 장소로의 사람이동을 동반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권 이외의 장소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 전화: 02-416-0316,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TEL: +82-2-416-0316, E-mail: jshan@chungbuk.ac.kr

최초투고일 2021년 02월 17일

수정일 2021년 03월 25일

최종접수일 2021년 03월 29일